

설날 가정 예배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시95:6-7a)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송 28장 (통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함께

▣ 가족기도문 / 온가족

인도자 : 저희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 족 :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도자 :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가 족 :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평강 아래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자 : 언제나 저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사랑의 영이 저희의
삶에 넘쳐흐르게 하옵소서.

가 족 : 저희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같이 :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의 인도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경봉독 / 시편 127:1~2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 말씀 / 인도자

오늘 저희 가정을 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날의 명절을 통하여서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 안에서 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집'은 가정을 가리키며, '성'은 성읍, 곧
도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면서 수고함으로 얻은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삶의 수고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곧, 하나님을 뒤로한 채
살아가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노력을 앞세우는 것은
잡을 수 없는 바람을 계속해서 잡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일”
그 자체만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요?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을 복되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뒷면으로 이어집니다.

2.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피조물 중의 하나인 나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끝이 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여 우리들의 일과 수고에 함몰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을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영혼과 육신의 쉼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가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이니이다”라는 시편 4편 8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므로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설 명절,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가족을 위한 기도 / 대표자

❑ 찬송 550장 (통 248)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다함께

❑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2월 10일(토)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설날 가정예배

